

두 여성의 상담자로의 진로전환 경험이야기

The Story of Two Women's Career Transition as a Counselor

최재혁, 김명화
명지대학교

Jae-Hyuk Choi(9371008@naver.com), Myong-Hwa Kim(touderi@hanmail.net)

요약

본 연구는 두 여성이 상담자가 되기까지의 진로전환 과정의 경험을 살펴봄으로써 상담자가 되어 가는 진로전환의 경험과 의미를 질적 연구방법의 하나인 내러티브 탐구방법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상담심리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두 번 이상의 진로전환 경험이 있는 상담심리사 2명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고,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들은 자신의 흥미나 적성을 생각해볼 기회를 갖지 못한 채 여러 번의 진로경험을 하였다. 둘째, 진로전환이 자신만의 방법으로 적응하는 경험이었다. 셋째, 여러 직업을 거치면서 점차 자신이 원하던 일과 공부를 찾아가게 되었다. 넷째, 자신이 선택한 상담자의 직업에 만족하고, 상담자로서 자신을 통찰해 가고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진로전환을 삶의 일부분인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상담 전문가의 길을 걷고 있는 상담자로서의 진로전환 경험의 의미를 확인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 중심어 : | 진로전환 | 상담자 | 내러티브 |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experiences and meanings of career transition becoming a counselor by examining the experiences of career transition process before two women became counselors through the narrative inquiry method. To do this, two counselors with career counseling qualifications and two or more career transition experiences were selected as research participant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y had several career experiences without having the opportunity to think about their interests or aptitudes. Second, it was an experience that career transition adapts itself. Third, as they went through various occupations, they gradually went to the work and study they wanted. Fourth, They were satisfied with the profession of the counselor they had chosen, and they were inspecting themselves as a counselor. In this study, it is meaningful to accept the career transition as a part of life and to confirm the meaning of career transition experience as a counselor walking the path of counseling specialist.

■ keyword : | Career Transition | Counselor | Narrative Inquiry |

I. 들어가기

인간은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자 하고, 일을 통하여 사회에 참여하며, 이때 직업은

자아실현이라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활동이다[1]. 진로란 일과 관련하여 한 개인이 경험하는 모든 체험을 의미하며[2], 자아개념의 발달에 따라 자신의 직업선택의 범위를 좁혀가는 과정을 진로발달이라고 하였다[3].

진로를 삶의 연속적인 과정으로 이해할 때 진로문제는 인생의 전반을 어떻게 계획하고 살아갈 것인가의 문제이며, 단순히 직업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적절한 직업을 선택 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34]. 생애진로발달은 진로선택이나 진로의사결정 과정이 단회에 이루어지지 않고 전 생애에 걸쳐 일어나며, 개체의 변화와 사회의 변화가 서로 작용하여, 개인의 생애역할, 장면, 사건이 서로 상호작용하고 통합되면서 개인의 자기개발 능력을 개발하는 일련의 발달과정을 말하는 것으로[5],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의 영향을 받아 진로자기개념이 형성되며 이러한 자기개념은 성장과 쇠퇴의 변화과정을 거치며 생애과정에서 끊임없이 변화한다고 보았다[6].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적성과 흥미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진로를 선택하는 진로행동이 일어나며, 안정된 직업을 추구한다. 그러나 많은 경우 삶 속에서 계획적이든지 비계획적이든지 진로를 변경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진로의 변화는 일반적으로 불안정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 직업의 손실 그리고 경제활동에서의 소외 등으로 인식되어 왔고[7], 또한 진로전환에 대한 사회의 시각은 개인의 사회 부적응이나 적응기술의 부족으로 낙인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Dirkx와 Mezirow, Cranton은 진로전환을 자아실현의 과정이며, 개성화를 추구하는 과정으로, 진로전환 행동의 의미를 재평가하며, 이는 이상적 직업을 찾아가는 과정이며, 새로운 직업을 통한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이라 하였다[8].

한편, 사람들은 수용 가능한 영역 안에서 자기가 원하는 직업을 선택하면서 어떤 부분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진로타협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진로타협이란 수용 가능한 진로대안 영역 안에서 자기가 원하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경우, 어떤 부분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과정을 말한다[3][4][9][10]. 즉 진로타협으로 인한 진로선택은 진공변경, 편입, 이직, 실직 등의 진로전환을 일으키는 진로과정을 겪게 할 수 있다.

Gottfredson[3]은 발달단계에서 나타나는 성역할, 사회적 지위, 흥미를 타협의 중요한 측면들로 제시하였고, Schlossberg[11]에 따르면 개인에게 발생하는 전환의 유형은 예측된 전환, 예측하지 못한 전환, 비활성화 전

환의 세 가지로 규정된다고 하였다. 또한 Hopson과 Adams[12]는 전환과 위기에 대한 내담자 반응을 개념화하기 위해, 전환을 자발적 전환과 비자발적 전환으로 구분하였다. 자발적 전환은 그 원인이 개인적인 능력이나 관심에서 비롯된다고 보았고, 비자발적 전환은 구조적인 힘에 의해 진로를 수정할 수밖에 없는 것을 말한다고 하였다.

진로전환은 진로생애의 일련의 과정으로 변화된 상황에 맞춰 새로운 방식을 가지고 자기실현과 개성화를 추구하는 과정이다[1]. 사람들은 첫 직장에서 자신의 능력이나 가치를 다 고려할 수 없고, 자신의 선택이 경제적인 이유나 노동시장의 환경변화로 인해 제한받고, 이에 타협하기 때문에 진로전환이 발생한다. 따라서 진공변경, 편입, 초기이직, 실직 및 조기퇴직 등의 진로전환에 대한 전 생애적 접근이 필요하며, 진로전환 양상과 진로타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진로전환 과정을 통한 개인이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진로결정 과정을 통하여 진로발달과정을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평생의 진로 결정은 특정 업종에 종사하기 위해 그 업종에서 요구되는 개인의 적성이나 능력 외에도 가치관, 장래의 전망, 현재 가정 형편 같은 경제적 요인까지도 감안해야 한다.

한편, 상담은 내담자와 상담자의 인간관계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지는 작업으로[13], 자격을 갖춘 상담자에 의해서 제공되는 전문적 활동이다. 상담에서의 치료적 관계는 내담자의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변화를 위해 상담자가 책임을 가지고 노력하는 전문적인(professional relationship) 관계이며[14], 몇몇 연구들은 상담자 자체가 상담 성과에 중요하게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상담자에 의해서 설명되는 상담 효과를 별도로 제시하고 있다[15-18]. 또 다른 시각에서는 상담자로서 전문성이 발달해나가는 특성을 알아보거나[27] 상담자의 상담 경험[28], 상담의 연구동향[29]에 관한 연구들이 있었지만 '상담자라는 진로를 선택하는 과정을 알기는 어려웠다. 따라서 상담의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담자로의 진로를 택한 개인의 진로 변환과정과 그들의 상담자로서의 직업에 대한 의미를 알아보고자 한다.

앞서 진로전환에 대해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연구가 양적 연구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연구들은 개인의 한 단계에서의 생애사건으로서, 진로전환 요인이나 이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체계 탐색이 주를 이루며 진로전환이 일어나는 과정이나 원인을 맥락으로 이해하려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질적 연구의 접근이 필요한데 이는 양적연구로 보여 질 수 없는 세밀한 탐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상담자로 진로전환을 하여 상담 전문가로서의 성장을 이루어가는 연구 참여자들을 통하여 그들의 진로전환 경험 속에서 나타나는, 그들이 지각하는 진로전환의 경험과 상담자로서의 전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전환 경험은 무엇인가?

둘째, 상담자로서의 진로전환의 의미는 무엇인가?

II. 연구방법

1.1 내러티브 탐구(Narrative Inquiry)

최근 상담 관련 연구에서 다양한 분석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질적 연구를 한다는 것은 가설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현상을 발견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30][31].

그러므로 질적 연구는 가치나 의미를 파악하기에 유용한 연구 방법이며, 진로전환 상황에 직면한 이들의 그동안 경험했던 진로전환 경험은 무엇이며, 그 의미는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내러티브 탐구가 적절하다.

내러티브 연구방법을 통해 한 개인의 경험에 대한 의미를 구성할 수 있는데, 이는 진로전환에 있어 실제적 측면보다 한 개인이 진로전환을 어떻게 지각하는지에 관심을 둔다. 이는 진로전환 경험자들의 경험에 대한 지각을 연구하는 것으로 진로전환 사건 및 경험의 변화 양상을 살펴며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밝히는 과정을 탐구하는 연구이다.

이 연구는 연구 참여자의 상담자가 되기까지의 진로

전환 경험에 대한 이야기(내러티브) 자료를 기초로 한 질적 연구이다. 여러 질적 연구 중에서 내러티브 탐구는 연구 참여자들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 하는 이야기하기와 이야기한 내러티브에 대해 다시 연구 이야기를 하는 다시 이야기하기 과정에서 현장 텍스트와 연구 텍스트가 완성된다.

1.2 연구 참여자

이 연구는 진로전환 경험이 있는 사람들로서 현재 상담자로서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 준비 중인 참여자를 필요로 하는데, 한국상담심리학회[33]에서는 상담심리사 1급인 상담심리전문가와 2급인 상담심리사로 구분을 하고 있다. 상담심리사는 개인상담과 집단상담, 심리평가, 그리고 심리치료와 상담에 관한 연구를 할 수 있으며, 일정기간 수련과 자격시험을 통과하면 상담심리전문가로서 상담심리사를 교육하고 수퍼비전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회 이상의 진로(진공)의 전환 경험이 있는 참여자를 대상으로 상담심리전문가가 아닌 상담심리전문가가 되기 위한 과정에 있는 이들로 선정하였다.

질적 연구의 목적은 특정한 사례에 대한 관심으로, 이는 양적 연구와는 달리 연구 관심이 되는 특정한 사례들에 한정된다. 따라서 그러한 특별한 사례가 그 사례를 포함하는 다른 사례들의 해석과 이해에 어떤 기여를 하고, 어떤 다른 대안적인 해석을 제공해 주는지를 확대하려고 노력한다[19].

표 1. 참여자 인적사항

참여자(가명)	성별	학력	진로전환과정	전환횟수
김소심	여	석사졸업	컴퓨터학과(강사)-은행원-청소년교육학(뉴스편집)-미술치료-상담대학원-상담심리사	5
이현실	여	석사졸업	경영학(공무원준비)-공부방-미술치료-상담대학원-상담심리사	4

따라서 연구 참여자는 연구될 현상을 필수적으로 경험하였고, 이를 그들 자신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일정한 준거를 만족하는 대상이어야 한다. 이에 연구 목

적에 적절한 의미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정하는 의도적 목적표집을 사용하여 연구자와 평소 친분이 있는 상담심리 석사 학위취득자를 대상으로 한 편의표집을 하여, 연구 참여자 2인을 선정하였다.

이는 진로결정이 이미 다양하게 이루어진 30대 이상으로 상담자로의 진로전환 또는 전공의 전환이 이루어진 진로전환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함으로, 연구 참여자의 진로전환의 다양한 경험과 더불어 상담자가 되기까지의 진로전환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는 서로의 평소 친분으로 인해, 연구 시작 이전에 라포가 형성되어 있었으며, 연구 주제에 대한 공감도 쉽게 이루어졌다.

연구 참여자 김소심(가명)은 39세의 여성으로 컴퓨터공학과 졸업 후 컴퓨터 학원 강사와 은행, 청소년교육학 전공, 뉴스 편집 관련에서 일을 했고 미술치료 자격 취득을 위한 수련 및 인턴, 미술치료사 후 상담심리학 석사 전공 후 상담자로의 길로 들어서 상담전문가로의 길을 가고 있는 경우이다.

연구 참여자 이현실(가명)은 40세의 여성으로 학부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방과 후 학교 운영, 미술치료 연구소, 미술치료사, 상담심리학 석사 전공 후 상담자로의 길로 들어서 전문가가 되기 위한 과정에 있는 경우이다.

1.3 연구 도구

연구자는 ‘상담자’라는 진로를 선택한 상담자가 그동안의 진로 전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진로 전환을 선택하고 결정하게 되었던 요인들에 중점을 두고 질문지를 작성하였다. 전현영[1]의 연구 질문지를 기초로 질문지를 제작하였고, 질문지의 내용이 적절한지 연구 참여자와 예비 인터뷰를 실시한 후 질문지를 재수정하고, 추가하는 과정을 거쳐 점차 세부적인 질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완성하였다.

표 2. 인터뷰 주요 질문 내용

인터뷰 질문지	
1	자신의 꿈(진로모부)의 변화과정을 말씀해 주세요.
2	처음 전공(직업)의 선택 이유 또는 계기와 그것으로 추구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3	진로를 변경할 때 중요하게 여긴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당신의 삶에 끼친 영향은 무엇이었습니까?
4	상담자로의 진로전환 이후의 삶에 대해 이야기 해 주세요.
5	상담자로서 미래에 대한 생각이나 태도는 어떠합니까?
6	지금까지 진로(직업)전환에 대한 생각은 무엇입니까?

1.4 연구 자료 수집

연구를 위해 연구 참여자들에게 연구 참여 의사를 확인하고 예비만남을 가졌으며, 예비만남에서 연구의 주제, 의도, 방법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 동의서를 받았다.

자료의 수집은 2015년 4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이루어졌으며 1차면담은 참여자별로 약 60분 정도 소요되었다. 면담을 위하여 사전에 반 구조화된 질문지를 제공하였는데, 이는 자신의 경험을 회상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함이었다. 질문지는 예비만남을 실시한 후 보완하였고 상담심리 전공 박사 수료자의 자문을 구하였다. 1차면담 후 연구자가 직접 전사하였고, 그 내용을 파악하여, 연구 참여자의 확인 과정을 거쳤다. 전사한 내용을 계속하여 읽으며 연구에 부족한 내용을 보완하기 위하여 추가 면담과 더불어 이메일 및 전화를 통한 자료의 확보에 노력하였다.

김소심은 2차 면담과 추가 면담을 포함하여 총 3회의 면담이 이루어졌고, 연구자가 파악한 내용의 의미를 확인하고자 이메일로 보내주어 또 다시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현실도 2차 면담과 추가 면담을 포함하여 총 3회의 면담이 이루어졌는데, 연구자가 이해한 내용의 의미를 확인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 직접 면담과 이메일 그리고 전화를 사용하였고 총 5회의 면담이 이루어졌다. 두 명의 면담 시간은 약 250분 정도이었고 전사한 내용은 A4용지로 약43장 분량이었다.

1.5 현장 텍스트의 생성과 자료 분석

본 연구는 Clandinin과 Connelly가 제시한 대로 내러

티브의 절차인 ‘현장 속으로 들어가기’, ‘현장에서 텍스트로 이동하기’, ‘현장텍스트에서 연구텍스트로 전환하기’, ‘연구텍스트 작성하기’를 따라 진행이 되었다[33]. 참여자들은 연구자와 함께 공부를 했었기에 라포 형성은 이미 되어있었던 상태였으므로 진로에 대한 과거 이야기부터 자연스럽게 표현될 수 있었다. 진로를 전환하는 과정에 대한 대화에서 그녀들의 말과 행동을 현장 노트로 기록을 하였고, 그 당시의 느낌도 함께 기록하였다. 평소에 ‘상담자’라는 직업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했던 터라 연구자의 포괄적인 질문으로도 참여자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어린 시절의 진로포부로부터 이야기로 시작되었다. 예비 연구 후 질문지를 좀 더 명확하게 탐색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져 질문지를 수정하였고 모든 내용은 녹음되었다. 현장 분위기나 연구자가 느낀 내용을 적은 연구노트를 보면서 참여자가 말한 의미를 여러 맥락에서 이해하도록 노력하였다. 이후 현장을 텍스트화 하는 작업을 하였고, 그들의 경험을 재해석하여 의미화 하는 작업을 거쳤다.

연구 목적에 부합되는 이야기들을 추려 내어 하나의 패턴으로 나타나는 같은 맥락의 내용들을 함께 묶어, 그 내용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주제어로 기술하였다. 전사된 내용과 주제어를 선정하여 기술한 것을 연구 참여자들에게 보내주어 확인하도록 하였고 연구자가 이해한 바를 확인하는 작업을 반복하였다. 또한 상담심리전문가가 주제어가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후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연구자가 다시 이야기하기 형식으로 구성하였다.

현장 텍스트는 특정 방식으로 연구 참여자가 반응한 것으로, 연구자가 해석한 이야기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최종적으로 연구 참여자의 확인 및 질적 연구의 경험이 있는 상담심리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여 연구의 타당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료의 수집과 분석과정에서 연구자의 선입견을 최소화하고 자료의 진실성 확보를 하고자 노력을 하였다.

III. 상담자가 되기까지 진로전환 경험 이야기

1.1 김소심의 마주 이야기

1.1.1 성적에 맞춘 대학진학

김소심은 작은 시골마을에서 자랐다. 지금과 같은 진로나 꿈에 대한 체험이나 활동은 전혀 없었던 시절이기도 했지만 자신이 어떤 것을 선호하고, 어떤 소질이 있는지 알려고 하지도 않았었다. **특산물이 유명했던 지역이라 농사를 짓거나 판매하는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보면서 자랐는데, 직업이나 진로에 대해 생각할 수 있도록 조언 해주는 멘토가 없었고, 김소심 또한 자신의 진로에 대해 찾아보거나 물어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었다. 왜냐하면 그녀를 둘러싸고 있는 직업의 세계는 너무 한정되어 있었고 그녀가 지각한 직업은 주변의 것이 전부였기 때문이었다.

“저 자신도 직업군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매우 한정적이었고 그냥 주변에 있는 직업... 그리고 보여지는 것이 공무원, 교사, 학원 선생님 정도가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시절 진로를 결정하기 위한 담임선생님의 면담은 자신의 의견과 재능, 꿈과는 거리가 멀었다. 이미 결과가 정해져 있었던 것처럼 성적에 맞춰 진로가 “결정”되었고, 그 결정의 주체인 “자신”은 배제되었다.

“정확한 진로를 찾지 못한 상태에서 고3때 담임선생님이 대학 전공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제가 뭘 좋아하고 하고 싶은지가 아닌 학점에 맞춰서 진로를 선택하였고... 워낙에 짧게 상담을 했고 이 학교는 위험하다, 이과는 성적이 안 된다. 뭐 그런 식으로 선생님이 다 정해놓고 있었고, 그 시간도 10분 이내로 매우 짧았던 걸로 기억해요.”

1.1.2 난 잘 못하는 사람

김소심이 대학을 진학할 때는 컴퓨터가 보편화되어 가던 시기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컴퓨터 관련학과를 가게 되었다. 도스에서 인터넷으로 바뀌는 전환적 시기

에 교육을 받았던 터라, 그녀가 컴퓨터에 대해 알지 못한 상태에서 시작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상고출신들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간단한 게임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제에도 어려움을 겪으며 좌절했고, 친구들의 설명을 들어도 이해를 하지 못했다. 아무리 공부를 해도 이미 실력이 있는 친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고 잘 해야겠다는 생각을 포기하게 되었다.

컴퓨터 강사를 하면서도 그녀는 항상 수업을 들어가기 전에 매일매일 공부 하고 연습 했지만 여전히 주눅 들었고, 이미 마음 한 구석에 자신은 잘 못한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기에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었다고 하였다.

“매일매일 공부를 했어요. 항상 수업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연습해보고 모르겠으면 찾아도 보고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잘 못한다는 생각이 있다 보니까 어떤 친구가 질문을 했는데 답변을 하지 못하면 그게 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모르면 ‘모른다 찾아보고 다시 알려주겠다’고 얘기 할 수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용납이 스스로 안 되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는 엄연히 다르고 내 분야가 아니면 당연히 모를 수 있고 못할 수 있는데도 그 때는 스스로 못한다는 생각이 깔려 있었으니까 그 부분이 용납이 안 되었던 것 같아요.”

김소심이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직장을 알아볼 때 주로 아는 사람의 소개로 이루어졌다. 그녀에게는 아는 사람이 있는 것만으로도 큰 의지가 되었다. 그녀가 은행에 입사하던 시기는 은행권에서 서비스 교육이 강화되고, 전에 하지 않던 시도를 많이 했던 때라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에 놓였었다. 그녀에게 새로운 무언가를 만드는 일과 사람들 앞에 서는 일은 항상 어렵게 느껴지기만 하였다.

“그냥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에 힘들었고... QA팀이나 연수팀은 다른 직원들 앞에서 교육을 기본으로 하다가 보니까 남들 앞에 서서 교육하는 역할에 힘들었고 자신이

없었어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나는 남 앞에 서기 힘든 사람이구나...”

1.1.3 새로운 전환점

호주에서의 어학연수는 김소심의 진로에 있어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다. 그녀가 도망치듯 갔던 그 곳에서 칼리지를 다니면서 알게 된 분의 자폐아를 픽업하는 일을 하면서 아이를 돌보게 되었다. 그러면서 그녀는 미술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미술은 어릴 때부터 관심을 가졌던 분야이긴 하지만, 아버지의 의견과 더불어 공부 잘하는 오빠들이 이과를 선택하자 그녀도 큰 고민 없이 당연한 듯 이과를 선택하였고, 이후로는 미술을 잊고 있었다. 우연한 기회에 어린 시절 좋아하던 미술을 접하고 미술치료를 배우고 현장에서 자신의 부족한 면을 보게 되면서, 내담자를 위한 최선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되었다. 이것은 그녀를 과거의 경험처럼 자신이 부족하다는 생각으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부족함을 채우고 전문성을 가지고자 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실전에서 미술치료를 23년 하다가 보니 제가 상담 베이스가 너무 약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내담자가 정말 치료가 되고 있는지 확신도 없고, 이론들을 어떻게 치료에 적용시켜 하는지 그런 방법적인 면들도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내담자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불안이 크다보니 프로그램에 의존하고 기법에 의존하고 하는 저를 보면서 베이스가 약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하나의 프로그램이라도 치료적으로 접근을 하면 다양하게 접근하고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1.1.4 또 다시 찾아온 좌절

미술치료를 하며 경험이 쌓여가는 동안, 내담자가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도우며 그 안에서 의미를 찾기보다는, 다른 곳에 집중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녀는 잠시 멈추고 자신에게 집중했다. 모난 부분을 자르고 깎아 둥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난 부분을 다른 장점으로 채운다면 더 큰 원을

만들 수 있듯, 김소심은 이전의 부족했던 자신의 모습을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러워 하는 대신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보여지는 작품을 만들려고 하는 제 모습을 봤어요. 학교나 기관에 들어가면 사실 분기별 또는 연말에 작품에 대해 전시회를 열게 되는데 치료에 대한 의미를 담기보다는 작품이 더 잘나오게 하려고 기술적인 부분을 터치하게 되고 설명하게 되고 도안을 만들어가게 되고 그런 부분이 저를 딜레마에 빠지게 했던 것 같아요.”

몇 번의 작업을 가지는 동안 김소심은 자신이 좋아하던 일을 찾아가게 되었고, 미술치료를 선택했던 것은 현실적인 선택이었다고 생각했다. 내담자들에게 하는 자신의 방법이 제대로 된 올바른 일인지 고민하면서 그녀는 대학원에 진학을 결심하게 되었다.

“결국은 제가 좋아했던 하고 싶었던 미술과 연관된 일을 저도 모르게 찾아가게 되면서 가장 현실적인 진로를 선택하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치료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서 대학원을 오게 되었고 상담을 배우면서..”

1.1.5 내 안의 나를 만나다

김소심은 상담을 배우면서 자기 안의 열등감이 진로를 바꾸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을 자각하기 시작하였다. 상담을 하면서 열등감이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자신이 항상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이 높았음을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녀는 자신이 세운 높은 기준에 미치지 못했을 때마다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였고, 회피했던 자신을 떠올렸다.

“저도 몰랐어요. 나 스스로가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기준이 높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스스로 높은 기준을 세워놓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나는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회피하고 도망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틀 안에서 헤어나지 못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1.6 상담사로 살아간다는 것.

상담사의 길에 접어들면서 사람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고 궁금함도 늘어났다. 지금까지 자신이 걸은 길들을 생각하며 그녀는 궁금해 했다.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한 것인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어떤 힘이 그녀를 이끌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여러 직업을 거치면서 의미 없는 경험은 아니었다는 생각을 하였다.

“처음에는 얼떨결에 흘러들어온 것 같은 이 길이 어찌면 정말 내가 꼭 거쳐야했던 과정이란 생각도 들고...”

내담자가 성장해 가는 과정에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긴 것은 김소심에게 다른 동기를 제시하기에 충분하였다. 내담자가 변화하는 과정을 보면서 자신도 그 속에서 함께 고민하고 생각하며 그 과정에 함께하고 싶어 했고, 자신 또한 함께 성장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상담을 하면서 어떤 개입을 하는 것보다 따뜻하게 바라봐주고 지지해 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 김소심은 상담사의 일을 계속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였다.

“내담자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오는 또 다른 방법으로 맞서고 이겨내고 성숙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저 또한 새롭게 배우고 알게 되고 인간은 힘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믿어주고 바라봐 주면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죠.. 그 친구들이 성장하는 부분을 보니 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떻게 성숙해져 가는지 이겨내는지 함께 하고 싶고 지켜보고 싶었어요.”

그동안 김소심의 진로 선택의 시작은 언제나 두려움이 뒤따라왔었다.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지만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으로 인해 진로선택의 기준에서 편안함과 익숙함은 중요했었다. 편안함과 익숙함에 무게를 두고 컴퓨터 강사와 은행을 결정하였다면, 미술치료를 시작한 것은 “도전”이었다. 그녀에게 미술치료와 상담은 익숙하지도 편안하지도 않은 길이었지

만 그녀는 용기를 내어 선택하였다. 강사와 은행의 진로가 “교육”에 가까웠다면 미술치료와 상담은 그녀에게 “성장”으로 느껴졌다.

1.2 이현실의 마주 이야기

1.2.1 내 주변이 전부인 세상

이현실은 그녀의 또래 아이들이 생각할만한 장래희망처럼 남다르지 않았다. 초등학교 고학년 때 교수가 되어 가르치고 싶다는 생각을 잠깐 했을 뿐, 교사 이외에 전문성을 가진 직업군을 볼 기회가 없었다. 그녀에게 있어 인생에서의 성공은 주변의 인정을 받는 선생님이 되는 것이었다.

“초등학교 때 여성이 전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볼 기회가 선생님 밖에 없었던 것 같았고. 그냥 멋있어 보였던 것 같아요.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그때는 선생님의 직업이 존경을 받는 직업이었기 때문에 선생님이 되면 큰 성공을 하는 것 이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주변에서 인정도 받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그녀는 꼭 무엇인가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없었지만, 어느 날 도서관에서 우연히 보게 된 마케팅 관련 책을 보면서 호기심이 생겨 경영학과로 진학을 결정하였다. 그녀는 마케팅이 재미있다고 생각하였고, 졸업 후 은행이나 회사에 취업하기가 쉽지 않을까 해서 내린 결정이었다.

“우연히 마케팅에 대한 것을 우연히 도서관에서.. 정확하게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브랜드의 히스토리와 상품개발에 대한 에피소드, 성공스토리를 소개한 책 이었던 것 같은데... 남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을 캐치하여 성공한 이야기들을 보면서 색다름을 느꼈던 것 같고, 나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부러움도 있었던 것 같고... 평소 접하지 못한 세계를 본 것이 흥미를 당겼어요.”

1.2.2 호기심과 도전

대학을 졸업하고 공무원준비를 시작하였는데 그 시

기에 집안의 경제적 사정과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그녀에게는 경제적인 면이 중요하게 되었다. 닥친 상황에 의해 공무원 준비를 포기하고 초등학교 대상의 공부방을 운영하게 되면서 그녀는 점차 아이들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게 되었다.

“초등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몇 년간을 하다보니까,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이들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입학한 아이들이 해가 갈수록 불안정하게 보이는 거예요. 산만하고, 두리번거리고 이야기 할 때 눈을 쳐다보지 않고 고개를 돌리는 아이들이 자주 보이고, 수업시간에 집중하는 시간이 점점 짧아진다고 느껴졌어요. 똑같은 환경에서 저 아이는 이런 행동을 하고, 다른 아이는 또 다른 행동을 하고... 왜 그럴까? 같은 환경, 상황에서 왜 받아들이고 느끼고 행동하는 것이 다른 걸까? 그리고 머리가 좋아 공부를 잘하는 아이도 손톱을 물어뜯거나 동생을 때리는 등의 행동을 보이기도 해서 아이들의 심리적 안정감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아이들의 심리에 궁금해 하고 있을 때, 방송에서 미술치료를 하는 것을 보았고, 길을 가다가 우연히 마주친 미술치료연구소에 무작정 들어가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게 되었다. 그렇게 주말에 공부하며 미술치료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미술치료를 배우고 직업으로 삼으면서 자신이 심리학에 대한 기초가 부족함을 깨닫게 되었다.

“미술치료에서도 심리학을 되게 중요시 여겼고 또 심리학을 좀 알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미술치료라고 해서 미술을 많이 배운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심리학을 바탕으로 미술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어서...”

1.2.3 전문성에 대한 의심과 필요성

이현실은 미술치료를 한다고 해서 미술적인 부분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심리학에 대한 베이스가 기초가 되어야 함을 알게 되었고, 심리학의 중요성에 대한 주변의 조언으로 그녀는 상담심리대학원을 가기로 결심하였다고 하였다.

“마침 미술치료학회 연수를 갔다가 미술치료대학원에 다니는 선생님을 알게 되었는데, 그 선생님이 상담심리대학원을 가라고 권유해서... 미술은 일종의 도구일 뿐이나 심리학 베이스가 탄탄해야 미술치료를 하기가 수월할 거라고...”

이현실이 상담심리대학원을 가기로 결정했던 것에는 또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었다. 공부방을 운영하면서 전문성의 의문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아이들을 뒹달해서 성적을 높이는 것보다, 아이들과 함께 지내는 것 자체를 행복해하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아이들을 만나고 가르쳤지만, 현실적으로 비용을 지불하는 사람은 그 아이들의 어머니들이었다. 성적만을 중요시하는 어머니들의 다그침과 그녀의 교육관은 너무도 맞지 않았는데, 특히 그녀는 억지로 울면서 공부하는 아이의 모습을 보는 것을 힘들어하였다. 어머니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들어야 했던 그녀의 경험과 그녀의 전문성에 대한 의심은 그녀에게 큰 상처가 되었다.

“아이가 많이 지켜보여서 어머니와 상담을 하면서 이야기 했더니 아이가 할 수 있는데 꾀를 부리는 거라고 상관하지 말라고 했어요. 내가 보기엔 아이가 정말 힘들어 보였거든요. 그 어머니가 나를 대하는 태도는 ‘네가 애를 키워봤나? 애는 내가 더 잘 안다’, ‘선생님이 아이를 안 키워봐서...’라고 하면서... 그때 내가 아동에 대한 전문적인 공부를 하였거나 관련 커리어가 있다면 이엄마가 나에게 이럴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러한 경험들은 그녀가 전문적인 공부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더 확고하게 다지게 하였다.

1.2.4 상담사로 산다는 것

상담사가 된다는 것은 이현실에게 자신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이면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편안함이 느껴지는 것을 뜻했다. 그녀에게 상담사라는 직업은 나름 ‘괜찮은’ 직업으로 다가왔다. 어릴 적 꿈꾸던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기도 하여 특별해 보이는 직업으로 느껴졌다.

“이 직업이 계속 꾸준히 공부를 하긴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도, 우선 경력이나 노하우가 쌓이면, 쌓이면 쌓일수록 뭔가 전문적인 직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경험을 통해 자신만의 노하우를 가질 수 있는 직업? 그리고 사회의 차별(남, 녀)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직업, 나이가 들어서도 충분히 이진 정년 없이 할 수 있는 여자로서는 괜찮은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판단한 것도 이유가 될 수 있어요. 선생님처럼 존경 받을 수 있는... 좀 특별해 보이면서도 자신만의 커리어를 가진 직업이라고 생각했고, 은행원이나 일반 회사원 보다는 희소성 있는 직업이 아닐까?”

상담심리를 공부하면서 이현실은 부모님을 포함한 가족들과 자신의 성향이 달랐음을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 늘 자신이 틀렸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자신이 ‘틀림’이 아니라 ‘다름’ 이었다는 것을 처음으로 깨닫게 되었다. 그녀가 상담으로 진로를 바꾸고 난 후, 이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거나, 내담자에게 잘 못하고 있다고 생각될 때는 후회를 하기도 하였다. 모르던 것을 알게 되는 일은 기쁨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보고 싶지 않은 자신과 마주하게 되는 힘든 시간이기도 했기 때문이었다.

“진로를 바꾼 것에 대해서는 이전에 살던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만족도는 크고 보람도 있지만, 뭔가 나의 역량이 부족하고 그럴 때에는 내가 이걸 괜히 했나 그런 후회가 들기도 해요.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여 내담자에게 상처가 되는 행동이나 말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 때, 나 자신을 만나가면서 느껴지는 새로운 나를 소화하기 힘들 때, 음... 분석이나 상담을 하면서 나의 감추고 싶던 부분들을 알아차림이 될 때, 모르고 살았으면 편했을 것을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1.2.5 선택에 대한 책임감

누군가의 선택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일을 하는 것과,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은 다르다. 이현실이 자신의 진로를 상담사로 결정했던 것은 자신이 진정 원하는 일이었기 때문이었다. 경제적인 부분에서의 아쉬움

은 존재하였지만, 그녀에게 있어서 하고 싶었던 일을 한다는 만족감이 더 크게 다가왔고, 자신이 선택한 일에서 오는 책임감 또한 기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좀 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우선하고 싶었고... 내가 흥미가 가고 관심이 있는 일, 재미가 있을 것 같은 일, 하면 행복해 질 것 같은 일... 호기심이 생기는 공부를 하고 싶었고, 다음에 음.. 그리고 뭔가 다른 전문지식을 가지고 나만의 영역을 가지는 직업을 원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원했던 것 같아요. (중략) 진로를 바꿀 때 가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책임감도 좀 느꼈던 것 같고, 삶에 만족도는 경제적인 것은 좀 힘들었지만, 뭔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 자신에 대해서는 만족 하고 있어요. 하기 싫은 일을 환경에, 상황에 의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일을 하는 거니까요.”

IV. 진로 전환을 통해 살피본 그녀들의 이야기

본 연구는 개인의 생애사의 한 부분을 다룬 기존의 진로전환을 연구한 양적연구와는 달리 상담자로의 길을 선택한 상담자들의 진로 전환과정과 그 안에서 진로 타협을 어떻게 경험하였는지, 상담자라는 직업이 자신에게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지 알아보려 하였다. 두 여성의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는 진로타협과 전환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김소심과 이현실은 진로에 대한 준비를 적절하게 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들의 점수나 상황에 맞추어 대학 진학을 하게 되었다. 두 사람은 자신들이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것에 흥미를 느끼는지 생각해볼 기회를 갖지 못하였고, 주변 환경 안에서 그때까지 보아왔던 제한된 직업군을 보았을 뿐이다. 김소심과 이현실에게 진로는 점수나 상황에 맞추어 대학에 가는 것으로, 이들이 속한 진로발달의 맥락적 변인이라 할 수 있는 가족이나 교사[20]는 그들의 성향을 고려하지 못했다. 이것은 개인의 역량을 고려하지 않은 진로선택이 전공 및 적성 불일치와 같은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목경수와

구자경[21]의 연구와도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개인의 적성이나 흥미에 맞추어진 진로지도의 부재로 인해 전공의 변경이나 이직을 경험하게 하였다. 따라서 적절한 진로선택을 위한 진로지도 및 교육의 필요성을 말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우연한 기회가 김소심과 이현실을 상담으로 가도록 하였다. 자폐아를 돌보는 일을 하던 김소심이 미술치료를 시작하게 된 것이나, 이현실이 공부방을 하며 아이들의 공부를 가르치면서 가지게 된 호기심을 통해, 심리치료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된 것은, 진로결정에 있어, 예기치 못한 사건들이 긍정적인 작용을 한 것이며, 이것을 통해 개인적인 노력에 의해 기회로 만들고자 하는 능동적인 과정을 포함하는 계획된 우연[22]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때로는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이끌기도 한다. 따라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진로전환의 과정들이 개인의 경력발달의 과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우리 사회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셋째, 김소심과 이현실이 미술치료를 시작했던 것은 자신이 원했던 일을 찾아가는 전환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었다. 김소심과 이현실이 미술치료를 공부하고 상담사의 길로 접어들게 된 진로 전환의 계기는, 지적 호기심과 지식에 대한 갈망 즉, 전문성에 대한 필요였다고 보이는데, 이 같은 진로전환 행동은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적 직업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새로운 일의 의미나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것을 뜻한다[8].

Nagy는 전문적인 능력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교육과 수련을 받는 것은 전문가의 의무라고 밝혔고[23][24], 아동상담자의 발달을 연구한 강민지는 ‘인간에 대한 삶’에 대한 관심이 상담자로의 발달을 이끌게 했다고 하였는데[25], 우리의 연구에서 두 명의 참여자 모두 지적 호기심과 인간에 대한 관심이 중요하게 작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일과 삶의 의미를 찾아 다양하게 진로전환이 발생하는데 이와 같은 진로전환을 지원할 경력발달 지원체계의 확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자기 스스로 선택한 진로로 인해 만족감을 느끼고 있었다. 상담사로서 김소심은 과거 강사나 은행에

서 경험된 일들에 대해 “외적인 성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고, 자신의 의지로 선택한 미술치료나 상담은 “내적인 성장”으로 표현하며 더 큰 의미를 두고 있었다. 그녀에게 있어 외적인 성장은 자신의 의도가 반영되지 않은 진로였으나, 내적인 성장은 자신이 스스로의 결정으로 선택한 진로였다. 김소심과 이현실이 대학 진학 때까지 부모나 선생님들이 결정해준 삶을 살았다면, 대학 졸업 후 부터는 스스로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결정하였다. 이때부터가 이들의 진정한 진로의 시작점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게 한다. 스스로 삶을 개척한 일들이 그들에게는 큰 의미였다고 고백하고 있었다. 이는 자신에게 선택되어진 진로분야에 만족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도록 변화를 추구하는[26] 삶의 과정인 것이다. 자기 스스로 선택한 진로에 대해 김소심은 ‘미술치료 시간을 기다리는 아이들’과 ‘순수한 동심의 세계를 느끼시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삶과 직업에 대해 의미를 느끼고 행복해 하였다. 또한, 이현실이 경제적인 부분에서의 어려움을 기꺼이 감수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에서 오는 큰 만족감과 행복이 더 컸기 때문이었다.

중년 여성의 진로를 찾아가는 과정을 질적으로 탐구한 김소연과 정희숙의 연구에서 중년 여성의 진로구성 과정이 진정한 ‘나(self)’를 찾아가는 여정이라고 하였듯[32], 우리의 연구에서 그녀들은 상담을 공부하게 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 알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었다. 이전에는 가족들과의 다른 모습들로 인해 자신이 ‘틀렸다는 것으로 지각하였으나 성향에 의한 ‘다름’을 인식하게 되면서 김소심과 이현실은 자신에 대해 치우쳤던 부정적인 생각들의 이유를 찾아가고 있었고, 부정적인 면에만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있는 자기 모습이해의 과정을 거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진로는 개인의 일생을 통하여 성취해야할 중요한 과업 중에 하나라 할 수 있다.

IV. 나가며

본 연구는 상담자로서의 진로전환 과정을 어떻게 경험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상담전문가로서의 길을 걷고 있는 두 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질적 연구를 수행하여 진로전환 경험의 의미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보았을 때, 두 여성 모두 전공이나 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탐색이나 의사결정의 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진로를 결정하여 진로전환을 경험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자신의 진로에 대한 결정이 불충분한 탐색과 타인에 의해 결정되었지만 실패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러한 경험들을 발판삼아 자신을 찾아가는 삶의 여정을 이어가고 있었다. 또한 두 여성은 자신의 진로전환의 경험을 자신만의 방법으로 사회에 적용하며, 자신을 알아가는 삶의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개인의 진로가 계획적이든지, 예측하지 못한 것이든지 맞이하게 되는 진로전환에 대해 긍정적으로 대처하며 그것을 기회로 삼을 수 있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필요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그녀들은 진로를 선택할 때 부모의 기대나 취업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타협하였고, 적절한 정보를 가지지 못한 채 진로를 선택하였지만 지속적으로 자신의 호기심을 만족시키는 진로전환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따라서 개인의 진로선택을 위해 체계적인 탐색을 위한 지원 체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진다. 그녀들이 상담자가 된다는 것은 자신의 성장과 도전, 다름의 이해를 통한 전문성의 실현을 의미한다.

우리는 두 여성의 진로변환과정의 이야기에 들어감으로써 상담자로 자신의 진로를 찾아가는 과정을 함께 했다. 여러 굵이를 돌아온 그녀들의 경험들은 자신만의 삶의 여정으로 이어가고 있었지만, 제시한 것처럼 자신의 성향이 고려된 진로교육이 이루어졌다면 진로선택이 용이해 질 것이라고 여겨진다. 그러므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진로교육과 정보제공이 마련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진로전환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두 여성에 국한되어 이를 일반화할 수 없으며, 연구참여자들 또한 여성으로 국한되어 진로전환에 있어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는 상담자로서

의 남성의 진로전환경험에 대한 연구가 추가로 필요하다. 또한 분석과정에서 연구자의 선입견의 최소화와 진정성을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질적연구가 가지는 한계가 있음을 밝혀 둔다.

참 고 문 헌

- [1] 전현영, *8인 8색 진로전환이야기*, 충남대학교 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 [2] 김계현, *상담심리학*, 서울: 학지사, 1995.
- [3] L. S. Gottfredson, "Circumscription and compromise: A developmental theory of occupational aspiration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28, No.6, pp.545-579, 1981.
- [4] L. S. Gottfredson, "Gottfredson's theory of circumscription and compromise,"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 Vol.3, No.1, pp.179-232, 1996.
- [5] 김봉환, 이제경, 유현실, 황매향, 공윤경, 손진희, *진로상담이론*, 서울: 학지사, 2010.
- [6] D. E. Super, "A life-span, life-space approach to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16, No.3, pp.282-298, 1980.
- [7] B. K. Newman, "Career change for those over 40: Critical issues and insights,"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Vol.44, No.1, pp.64-66, 1995.
- [8] J. M. Dirkx, J. Mezirow and P. Cranton, "Musings and reflections on the meaning, context, and process of transformative learning A dialogue between john M. dirkx and jack mezirow," *Journal of Transformative Education*, Vol.4, No.2, pp.123-139, 2006.
- [9] I. Gati, "Career compromis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40, No.4, pp.416-424, 1993.
- [10] E. Ginzberg, S. Ginsburg, S. Axelrad, and J. Herma, *Occupational choice*, New York, 1951.
- [11] N. K. Schlossberg, "A model for analyzing human adaptation to transition," *The Counseling Psychologist*, Vol.9, No.2, pp.2-18, 1981.
- [12] B. Hopson and J. Adams, "Towards an understanding of transition: Defining some boundaries of transition dynamics. Transition": *Understanding and Managing Personal Change*, pp.3-25, 1976.
- [13] 배연옥, 조성호, "상담자 발달 과정에 대한 연구," *학생생활상담*, 제27권, pp.19-42, 2009.
- [14] 최윤경, "한국 상담자의 전문업무에 관한 연구," *미래교육연구*, 제17권, 제2호, pp.147-173, 2004.
- [15] 이문희, "상담자의 심리치료와 전문성 발달," *사회과학 연구논총*, 제25권, 제6호, pp.27-59, 2011.
- [16] Paul Crits-Christoph, Jim Mintz, "Implications of Therapist Effects for the Design and Analysis of Comparative Studies of Psychotherapi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Vol.59, No.1, pp.20-26, 1991.
- [17] Lester Luborsky, A. Thomas Mcelellan, Louis Diguier, George Woody, David A. Seligman. "The Psychotherapist Matters: Comparison of Outcomes Across Twenty-Two Therapists and Seven Patient Samples," *Clinical psychology*, Vol.4, No.1, pp.53-65, 1997.
- [18] Jonathan D. Huppert, Lynn F. Bufka, David H. Barlow, Jack M. Gorman, M. Katherine Shear, and Scott W. Woods, "Therapists, therapist variables, and cognitive-behavioral therapy outcome in a multicenter trial for panic disorder,"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Vol.69, No.5, pp.747-755, 2001.
- [19] 김영천, *질적연구방법론*, 파주: 아카데미프레스, 2012.
- [20] 선혜연, "청소년 진로의사결정 상황에 따른 부모의 관여방식 차이," *진로교육연구*, 제21권, 제3호, pp.49-67, 2008.
- [21] 목경수, 구자경, "고등학생의 부, 모 애착과 진로

정체감의 관계에서 자기격려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제13권, 제3호, pp.1119-1139, 2012.

[22] K. E. Mitchell, S. Levin, and J. D. Krumboltz, “Planned happenstance: Constructing unexpected career opportunities,”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Vol.77, No.2, pp.115-124, 1999.

[23] T. F. Nagy, *Ethics in plain English: An illustrative casebook for psychologists*, (2nd ed.), 2005.

[24] 김영근, 김현령, 이정인, 신재훈, 신동미, 이상민 “한국 상담사법 제정에 관한 예비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24권, 제3호, pp.641-670, 2012.

[25] 강민지, *근거이론에 의한 아동상담자의 전문성 발달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26] N. C. Gysbers, M. Heppner, and J. Johnson, *Career counseling*, Boston: Allyn and Bacon, 1998.

[27] 임한나, *초심 집단상담자의 발달특성: 합의적 질적 분석*, 광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28] 오정희, *초보 상담자들의 첫 상담 경험에 대한 질적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29] 박승민, “상담학 분야의 질적 연구 경향 분석. 국내 학술지 논문을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제13권, 제2호, pp.953-977, 2012.

[30] 지승희, *회피형 내담자가 지각하는 상담과정 및 변화요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31] 김명화, 홍혜영, “초심수퍼바이저의 수퍼비전 교육 필요성에 대한 합의적 질적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7권, 제2호, pp.573-594, 2017.

[32] 김소연, 정희숙, “한 중년여성의 진로구성 과정,”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5권, 제5호, pp.265-282, 2015.

[33] http://www.krcpa.or.kr/sub03_1.asp

[34] 허정철, “진로탐색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여대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2권, 제10호, pp.227-236, 2012.

저 자 소개

최 재 혁(Jae-Hyuk Choi)

정회원



- 2013년 2월 : 명지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석사
- 2017년 2월 : 명지대학교 대학원 심리재활학과간협동과정, 박사 수료
- 2011년 3월 ~ 현재 : 명지대학교

학생상담센터 객원상담사

<관심분야> : 진로, 상담, 수퍼비전

김 명 화(Myong-Hwa Kim)

정회원



- 2010년 8월 : 명지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석사
- 2016년 2월 : 명지대학교 대학원 심리재활학과간협동과정, 박사 수료
- 2013년 1월 ~ 현재 : 명지통합치

료연구센터 전문치료사 및 수퍼바이저

▪ 2015년 3월 ~ 현재 : 마음온아동청소년상담센터

<관심분야> : 상담, 수퍼비전